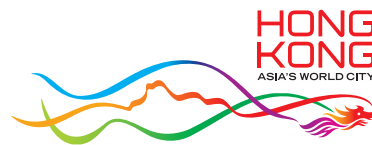


HONG KONG LINER



수석대표,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울 방문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중앙)과의 면담

원섭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을 방문하여 면담을 가졌다. 제주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 중 함께 열리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부문별 장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아우 수석대표는 이번 제주 방문을 계기로 첸지안쥔(陳建軍) 주제주중국총영사,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본부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아우 수석대표는 면담에서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홍콩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홍보하였으며, 홍콩과 제주 양 지역간 관광교류 확대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아우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장,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아우 수석대표는 홍콩과 한국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아우 수석대표는 10월 24일 한국영상자료원 개관 5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는 홍콩영상자료원 등 여러 국가 및 지역 내 영상자료원들이 참여하였다.



첸지안쥔(陳建軍) 주제주중국총영사와의 면담

수석대표,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울 방문



김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정책팀장과의 면담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의 면담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본부장과의 면담

M+ 뮤지엄, 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업무협약 체결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에 위치한 아시아의 글로벌 현대시각문화 미술관인 M+ 뮤지엄은 10월 23일 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문화 기관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아시아 예술계 발전을 위한 M+ 뮤지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M+ 뮤지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시각예술 및 영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신규 작품 공동 의뢰, 전시 교류 및 공동 기획, 소장품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아태 지역의 풍부한 영

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 디지털화 및 영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M+ 뮤지엄의 아시아 아방가르드 영화 도서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동 큐레이터 연구, 공공 프로그램, 직원 교류 및 도서관 교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M+ 뮤지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좌측부터, 수한아 래플 M+ 뮤지엄 관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시정 연설 - 발전 도약 및 미래 건설을 위한 개혁

존 리 행정수반은 10월 16일 '발전 도약 및 미래 건설을 위한 개혁'을 주제로 임기 중 세 번째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홍콩은 금융, 해운, 무역의 국제 중심지로서 강점을 구축해 왔으며, 이들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상호 보완적 방식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연설에는 금융 분야에서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모든 면에서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홍콩의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자산 및 증권 시장을 개선할 것이며, 세계적 수준의 금 보관 시설을 구축하고 거래 메커니즘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홍콩을 국제 금 거래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기존의 홍콩항만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이 홍콩항만발전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Development Board)으로 재편된다. 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중국 본토 및 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인력 양성을 증진하도록 추가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국 본토 및 해외 해운 서비스 기업



이 홍콩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홍콩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무역 부문을 살펴보면, 홍콩 정부는 고부가가치 공급망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공급망 서비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수출 신용 서비스를 개선하며, 중국 본토와 홍콩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정에 관한 제 2차 협

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본토 및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 본사나 법인 지사를 설립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주류 거래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콩을 국제 혁신 및 기술(I&T)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추가 투자에 더하여,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I&T 산업 중심 기금을 설립하여 보건 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신종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더 많은 시장 자본을 유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I&T 엑셀러레이터 시범 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업체가 홍콩에 엑셀러레이터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스타트업의 견고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

홍콩, 세계 주요 랭킹 상위권 유지

경제자유도 프레이저 연구소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홍콩은 165개 경제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하여,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였다.

세계금융센터지수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중국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9월에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에서 전세계 3위를 기록하여, 올해 3월에 발표된 보고서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였다.

세계인재순위 홍콩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9월 발표한 2024년 세계 인재 순위에서 순위가 7계단 상승하여 세계 9위를 차지한 바, 2016년 이후 처음 10위권 안으로 재진입하였다.

세계혁신지수 홍콩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11월 발표한 2024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한 바, 순위가 세 단계 상승하였다.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임대 연장 제도

정부 임대 연장 조례가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홍콩에서 임대 연장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상설 법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향후 수년간 만료되는 상당수의 토지 임대 계약의 효율적인 처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부는 '연장 공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주거, 상업 및 산업용 임

대를 일괄적으로 50년 동안 연장하며 추가 토지 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2047년 기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링크를 참고

<https://www.landso.gov.hk/en/land-disposal-transaction/extension.html>

2024 홍콩 핀테크 위크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핀테크 행사 중 하나인 홍콩 핀테크 위크(HKFTW)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되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웹3.0 등 업계를 형성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중점을 둔 홍콩 핀테크 위크는 금융과 기술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들려야 할 행사이며, 기업들에게는 전문성을 선보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핀테크의 새로운 길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3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홍콩,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2024 홍콩 핀테크 위크에 참석한 폴 쉐ن 재정부총리는 홍콩이 가장 매력적인 글로벌 핀테크 허브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폴 쉐ن 재정부총리는 "최근 수치를 살펴보면 홍콩 생태계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홍콩에는 1,100개 이상의 핀테크 및 웹3.0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홍콩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쉐ن 재정부총리는 또한 홍콩 정부가 10월 28일 금융 서비스 부문의 책임감 있는 AI 적용에 대한 정책 입장과 규제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쉐ن 재정부총리는 "우리는 AI에 대해 이중 트랙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AI 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를 수시로 검토하고 완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 규제 당국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명확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상무부, 서비스 무역에 대한 CEPA 협정 개정에 관한 제2차 협정 체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상무부는 10월 9일 중국 본토와 홍콩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정에 관한 제2차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새로운 자유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와 업계 종사자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의 주강 삼각주 9개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본토에서 기업 설립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정에 포함된 제도적 혁신 및 협업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홍콩 투자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홍콩 투자 기업의 홍콩 법률 채택 허용'과 '홍콩 투자 기업이 중재 장소로 홍콩을 선택하도

록 허용'을 추가

- 국내 규제에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할 때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춤
-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가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3년 동안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홍콩 스타트업들에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

CEPA는 국적에 무관하므로, 홍콩은 해외 투자자가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홍콩 기업과 협업하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4년 행정수반 시정 연설 The Chief Executive's 2024 Policy Address



발전 도약 및 미래 건설을 위한 개혁

Reform for Enhancing Development and
Building Our Future Together



2024
시정 연설
Policy Address



‘일국양제’를 온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

- ‘일국양제’의 제도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수호하는 기본 전제를 고수
- 각 부처 장·차관이 주도하는 4개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설치
 - 교육·기술·인재 위원회
 - 저고도 경제 개발 실무그룹
 - 관광·형성 개발 실무그룹
 - 실버 경제 활성화 실무그룹
- 공무원 거버넌스 역량 강화
 - 공무원 관리 및 규율에 대한 규정 검토
 - 거버넌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 중국 본토 도시와 협력하여 상호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도입
-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홍콩의 장점 통합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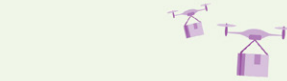
- 국제 금융 센터
 - 국제 금 거래 시장 및 세계적 수준의 금 보관 시설 개발
 - 새로운 자본과 상품을 홍콩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 표시 증권 상품을 개발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
 - 역의 위안화 유동성 강화를 위해 중국 본토와의 통화 스왑 협정을 효율적으로 활용
 - 고급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여 신규 자본투자 유치 제도를 강화
 - 상용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통(남향통)의 적절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 보험 부문, 특히 손해보합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대기업에서 홍콩에 손해보합사를 설립하도록 유인
- 국제 해운 센터
 - 홍콩 해운항만발전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중국 본토 및 해외에서 연구 역량과 홍보 활동을 강화
 -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국제 상품 거래소가 홍콩에 공인 창고를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상품 거래 생태계 조성
 - 선박 중개, 금융 및 리스, 해상 보험, 해상법 및 중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 개발을 촉진
 - 녹색 해운 연료 병커함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녹색 해운 센터 개발을 추진
 - 스마트 항만 발전을 추진하고자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설치 완료
- 국제 무역 센터
 - 중국 본토 및 해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공급망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들이 홍콩에 역외무역본부를 설립하도록 유치
 - 홍콩 수출신용보험공사의 법정 최대 배상 비율을 95%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가 홍콩에 진출하도록 장려



- 홍콩 외부에서 전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본사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홍콩에 등록된 기업의 외국인 직원에 대한 중국 본토 복수 입국 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 주류 거래 및 관련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류 세율 인하
- 국제 항공 허브
 - 제3항주로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목적지 및 항공편 개혁
 - 공항 도시의 규모를 확장하여 세계 최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
 - 홍콩국제공항 동관 물류단지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항공화를 산업 부문에서 홍콩의 우위 강화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 개발

- 홍콩의 신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 및 투자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 신산업화 개발 연합의 설립을 추진
- 첨단 제조, 소재,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둔 제3차 ‘InnoHK’ 연구 클러스터를 추진
- 연구, 혁신 및 기술(I&T)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I&T 산업 중심 기금 설립을 통해 재간접펀드를 조성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신종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더 많은 시장 자본을 유지
 - 15억 홍콩달러를 재투자하여 전략적 산업 부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공동 기금 설립을 통해 혁신 및 기술 벤처 기금의 최적화 추진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15억 홍콩달러 규모의 연구 매칭 보조금 제도 도입



- 1억8천만 홍콩달러를 배정하여 I&T 엑셀러레이터 시범 제도 운영을 통해 홍콩 현지 및 외부의 전문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업체를 유치하고 매칭 방식으로 엑셀러레이터 기반 구축을 지원
- 저고도 경제 개발 전략 및 부처 간 조치 수립
 - 저고도 비행 적용 시나리오 검토
 - 관련 규정 작성
 - 중국 본토와의 인터페이스 추진
 -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및 계획
- 홍콩을 국제 보건 및 의료 혁신 허브로 개발
 - ‘1+’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를 모든 신약으로 확대하고 ‘1차 심사’ 도입을 위한 홍콩 의료제품 규제 센터 설립을 추진
 - 대만군 임상시험 협력 플랫폼 개발
 - 실제연구 및 응용센터(Real-World Study and Application Centre)를 설립하여 홍콩에서의 신약 승인을 가속화
- 디지털 거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민테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지원

홍콩을 우수 인재
국제 허브로 육성

- 교육·기술·인재 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 기술 및 인재의 통합 개발을 조율
- 다양한 인재 유치 매커니즘을 개선
 - 인재 목록 업데이트
 - 우수인재 취업지원 제도 대상 대학 목록 확대
 -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 기술 직종 인재 유치
 - 우수 대학·인재개발을 통해 우수인재를 흡수으로 적극유치
 - 홍콩 대학의 대만군 캠퍼스 졸업생이 2년 동안 홍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험 제도를 연장
- 고등 교육 확대 노력
 - 현지 학생들이 추가 학업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위한 홍콩 미래 인재 장학금 제도(Hong Kong Future Talents Scholarship Scheme for Advanced Studies) 수립
 - 진학할 및/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홍콩 이외 지역에서 학업을 유지하여 'Study in Hong Kong - 브랜치 확립' 사업에 유학생 학생 호스텔로 유망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상을 지원
 - 북부 도회구 대학 타운(Northern Metropolis University Town) 개발을 위해 80헥타르 이상의 토지 할당
- 청년들의 보조금 지원 분야에 마스터 매일을 지원하기 위해 주력수채도 지원 기회와 2차 지원 할당량을 늘림
- 카이탁 커뮤니티 격리 시설에 '청년 포스트(Youth Post)' 호스텔을 설립하여 '청년 광장'을 개조하여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네트워킹을 확대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조성

- ▶ 향후 5년간 총 공공주택 공급량을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약 80% 증가한 18만 9천여호 확대
- ▶ 주거용 건물의 분할형 임대(subdivided units) 임대에 대한 규제 제도를 제정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
- ▶ 주거사다리 강화
 - 보조금 지원 분양 아파트의 공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임
 - 보조금 지원 분양 아파트 구매에 반복 실패한 신장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 ▶ 공공임대주택 고소득 세입자 제한 정책(Well-off Tenants Policies)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세제도 그린 폼(Green Forms for Home Ownership Scheme)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택소유세제도 주택 구매를 장려
- ▶ 트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및 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낮춤
- ▶ 건축기술연구소를 건축 기술력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건설 부분의 혁신을 선도하고 표준을 중국 본토와 통일
- ▶ 홍콩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촉진지 시행

디자인: 정부 신문체
발행처: 정부물류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활용 용지에 친화적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의 통합적
발전과 경제 다각화 추진**

- 국제적인 시각으로 문화예술 및 창조 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및 창조 산업 개발 방안 제시 발표
- 서구권 문화지사의 홍콩의 문화예술 및 창조 산업의 산업 체인 구축을 주도하고, 문화 및 창조 환경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지속 가능성을 확보
- 운송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가 스포츠 협회의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스포츠 활동 촉진, 엘리트 스포츠 지원, 유망 국제 스포츠 행사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 유지, 전문성 향상 및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개발 등을 통해 스포츠 부문에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 내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카이탁 스포츠 파크를 스포츠 및 대형 행사 랜드마크로 육성
- 홍콩 관광산업 2020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여 홍콩을 최고의 관광 목적지로 발전
- 관광청도 개발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부서 간 조율을 강화하고 이관 관광연속 발굴 및 개발에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이 현금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금 유보 제도를 제도화
 - 기업의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BUD 기준에 10억 홍콩달러 투입
 - 디지털 전환 시범 프로그램을 관망 및 개인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 정기 전시회를 위한 인터네티비 제도 2.0 도입을 위해 5억 홍콩달러 투입
- 실버 경제 활성화 및무그룹을 수립하여 실버 소비, 인환, 품질 보충, 금융 및 보안 조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
-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북부 도회구 개발 추진
 - 개발전문업체가 복합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토지 처분' 접근 방식을 채택
 - 신생 산업단지 건설에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하기 위해 정부 주도 조세 설립
- 허타오 선전-홍콩 과학기술혁신협력구 홍콩단지 개발안을 발표하여 두 단지 간의 상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혁신적 정책을 수립

의료 시스템 개혁 강화

- 의료 시스템의 현재 위치와 목표를 검토하고 병원 당국, 보건부, 1차 의료 위원회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구조를 개혁
- 1차 의료의 전면적 개발 추진
 - 1차 의료 위원회가 품질 보증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모자 보건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재조정
 - 민영화 모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약국 프로그램 및 리스크 기반 선택 지불 프로그램을 도입
-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스템에 대한 품질 지표를 개발 및 민간 의료 가격 투명성을 위한 법률 제정 모색
- 현지 대학에서 세 번째 의대를 설립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복부 도화구에 의해 부지 지정
- 내년에 한의학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여 한의학의 국제화 추진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단계적 치료 모델 개발 등 의료·교육·사회 협력 강화

배려하는 포용적인 사회 구축

- 노인 케어
 - 광동성의 시설케어 서비스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
- 노인 시설케어 서비스 부추저 제도의 서비스 부추저 수를 20% 확대
- 종합치료보장지원제도의 노인 수혜자가 광동성 지원된 시설돌봄 요양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제도 시행
- 간병인을 지원하고 지역 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노인 및 간병인 지원에 관한 시범 제도를 18개 진 지구로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함
- 통합 커뮤니티 재활 센터에 추가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강화
- 소수 민족 지원 서비스 센터를 한 개소 더 설립하여 통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중국거주 학생의 중국어 학습 지원 및 해당 학생 부모 지원 강화
- 발달장애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돌봄이 아동 보육 센터의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아동 보육 프로그램(Neighbourhood Support Child Care Project) 서비스 제공 장소 확대
- 케어 팀(Care Team)을 정규화하고 자기 계약에서 자금을 50% 인상
- 근로자 재교육 위원회를 개혁하여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진략 제공
- 판사 기구 관련 임금 보조 검토, 법정 최저 임금의 연례 검토 메커니즘 시행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 계약' 요건 완화
- 판사를 교육 및 재할당에 대한 대중의 견해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 중반에 일반법에 보

“개발할 모멘텀과 자기개선을 유지한다.”

원칙과 혁신, 유연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변화를 수용한다. 

SPOTLIGHT HONG KONG



홍콩 영화의 매력을 느껴보자 : 홍콩국제공항서 <구룡성채: 무법지대> 전시회 개최

홍콩국제공항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호평을 받은 홍콩 현지 영화 <구룡성채: 무법지대>의 상징적인 장면들을 재현하였다. 전시 관람객들은 영화의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통해 과거 구룡성채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다.

홍콩국제공항에 이어 12월 16일에는 카우룽 시티 에어사이드 쇼핑몰로 장소를 옮겨 두 번째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